

건강가정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

- 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실린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The Trends and Beyond of the Research on the Healthy Families

- Focused on a Review of the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박 정 윤*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전공

교 수 이 선 형**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Park, Jeong-yun

Department of Social Work for the Elderly, Hoseo Univ.

Professor Lee, Sunh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Increasing interest in family problems caused by social environment changes has elevated the importance of strong family policy. That is why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has enacted in 2004 in Korea and it marked the 10th anniversary of establishing the law. This study finds out the meaning of enacting the law and an academic field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through reviewing and analyzing the studies on the healthy families from 2000 to 2013 year i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divide research themes into three parts: policy, practice(I)(center management),

* 주저자: 박정윤(pjy4838@cau.ac.kr)

** 교신저자: 이선형(yisunh@hoseo.edu)

practice(II)(program development & efficiency), specialist area. The research trends have most focused on the issue of practice(II), that is, program analysis and development, contents review, because of the settlement of delivery system after the early of law establishment. But it is needed to rethink research themes because it has been dealt with not academical researches on theoretical basis but practical ones, for example, program development on Healthy Families Center and the tendency still lasts until now. Second, more than half of research methods have been concentrated on contents analysis and about 70% of research objects are focused on the center program. It needs to adopt variou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objects. Lastly, it is necessary to make an academic identity clear that can be faithful to Family Resource Management Studies.

Key Words : 건강가정(healthy family), 가족자원경영학(Family Resource Management),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I. 서론

한국사회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돌봄의 공백, 지속적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 소위 신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IMF와 국제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가정생활이 위협을 받으면서 가정은 스스로를 유지시키는 힘이 약화되고 이는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상황에 처하면서 그동안의 가족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을 위한 근간으로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게 되었고, 기존의 잔여적이고 보충적, 사후처리적인 복지접근의 방식에서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가정단위의 통합적 접근의 가족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형성과 만족스러운 관계 유지, 배우자 선택의 자유와 기회, 자녀출산과 돌봄, 행복한 일상 등의 보장을 가정

생활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송혜림·이승미, 2014).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전부터 건강가정에 대한 많은 학문적 관심과 노력들이 있어왔다.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이 상이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법제정 전후로 건강가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전달체계와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이에 2004년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학은 종합학문으로 다양한 세부영역이 존재하고 이들 영역들에서 각각이 건강가정에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왔고 그 중 대표적인 관련분야가 가족자원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학 영역에서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는 법 제정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법 제정 전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법 제정 이전에는 가족자원경영관점에서의 건강가정육성

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급박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외부적 개입의 필요성으로 가족정책의 명시화를 제시하고 이에 법과 제도 마련을 다루는 연구,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 방안 등이 이루어졌고 법 제정 이후부터는 건강가정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유지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을 시도하였다. 또 구체적인 건강가정사업 실시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서 질 높은 사업수행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으며, 전문 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자원경영학 관점에서의 제안 등도 이루어져왔다. 이렇듯 최근 10여년 간 가족자원경영학 분야는 건강가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건강가정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법 제정 10년을 맞이하는 2014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회변화는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한국의 가정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중요 자원으로 인식되며 가정의 안정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일-가정 양립과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요구되며 다양한 가족 유형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 가정 스스로가 문제해결과 복원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관련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변화들이 있었고, 법 제정 당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유일한 전달체계였으나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새롭게 형성, 운영되고 있고 양적 증가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에 향후 건강가정정책이 모든 계층과 모든 유형을 포괄하면서도 특수성을 고려하는 보편주의 내의 대상화 접근법을 추진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정민자, 2014)하기 위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건강가정에 관련한 교육·연구의 동향을 가족자원경영학이라는 학문분야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학문적 노력이나 추이를 밝혀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서 향후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건강가정기본법과 정책, 사업의 연구 방향이나 내용들에 대한 제안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가정정책 두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건강가정에 관한 정책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을 감안한다면, 센터 통합에 따른 건강가정정책의 이념과 방향, 통합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가족자원경영학적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여년 간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건강가정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건강가정의 가족자원경영학의 연구방향과 건강가정정책과 실천적 과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연구문제 1) 2000-2013년까지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건강가정

관련 연구주제 및 내용의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00-2013년까지의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에 게재된 건강가정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 연구대상의 경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논문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학회지 ‘건강가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논문제목 검색을 통해 나온 학술지를 살펴보았다. (주)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society.kisti.re.kr>), 학술교육원(<http://www.earticle.net>) 사이트를 조사하였다(최종 접속날짜 2014년 4월 4일). 그 결과 2003년을 시작으로 건강가정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했고 이를 기점으로 2013년까지 건강가정과 관련한 제목으로 쓰인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온 학회지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족복지학회지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의 주요어로 검색한 결과 해당년도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가 55편, 한국가정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총 22편, 대한가정학회지는 10편, 한국가족복지학회지는 2편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서 건강가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학회지마다의 연구경향으로는 한국가정관리학회는 건강가정사업 관련연구가 다수였고(김경신·이승미, 2004; 박정운, 2008; 오윤자, 2008; 김혜연 외, 2009; 박정운, 2009; 이은주·전미경, 2013; 정영금 외, 2013; 김혜연, 2014), 건강가정 조직과 운영에 대한 연구(송혜림·장진경, 2004), 건강가정사에 대한 연구(이윤정·정은희, 2008),

건강가정기본법과 정책, 통합관련 관련 연구(정민자, 2004; 조희금·박미석, 2004; 성미애·이현아, 2004; 윤경자, 2008; 김경신 외, 2008; 이승미 외, 2012)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한가정학회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나 건강가정사업 모형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윤종희, 2006; 김진희, 2008; 이지원 외, 2008; 진미정·유재언,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평가 및 인식관련 연구(김명자 외, 2005; 원소연·장진경, 2005; 장진경 외, 2006), 건강가정사에 대한 연구(임춘희, 2007; 최연실 외, 2012)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한국가족복지학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전략(도미향, 2009)과 건강가정사(정여주·이기숙, 2013) 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영역에 대한 가장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왔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를 중심으로 논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회지에 따라 학문의 접근방식이 달라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족자원경영학이라는 학문에서의 건강가정에 대한 접근으로 한정하기 위함이다. 분석 연도는 건강가정에 대한 필요성이 한국에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에서 2014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3년까지 발행된 학회지 논문과 학술대회 논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지와 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린 55편이 선정되었다.

(2) 분석내용 및 방법

앞에서 선정된 55편의 논문을 다음 4가지 기준으로, 즉 시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표 1> 참조). 선행연구(조희금 외, 2014)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전의 태동기, 제정기, 정착기, 확대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가족자원과 건강가정연구 교수 2인의 자문을 토대로 하여 본

〈표 1〉 분석의 기준틀

시대 구분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2004년 · 2005~2009년 · 2010~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정책과 제도 · 건강가정실천(I) : 건가센터 운영 · 건강가정실천(II): 프로그램 개발, 성과 · 건강가정 전문 인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양적조사연구 · 심층면접 · 집중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 실험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1) : 일반 가족 · 사업대상자(2) : 다양한 가족 · 건가센터 종사자 · 건강가정 전문가 · 건가센터 사업/프로그램

연구의 연도구분은 개소 이전인 2000~2004년을 건강가정법 제정 이전과 법제정에 해당하는 시기를 도입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후 건가센터)가 본격적으로 개소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확대하는 시점인 2005~2009년을 건강가정사업 확장기, 2010~2013년은 확대된 건강가정사업이 사업내실화와 센터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로 발전기로 규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주제는 논문 제목 및 내용을 토대로 건강가정에 대한 정책과 제도, 실천, 전문인력, 기타로 나누었으며, 실천 영역은 건가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과 성과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또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양적조사연구, 심층면접, 집중집단면접, 실험연구로 나누었으며, 연구대상은 사업대상자와 건가센터 종사자, 건강가정 전문가, 건가센터 사업/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주제별 경향성

2000년도부터 2013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와 학술대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표 2> 참조) 연구주제별 특성을 살펴보면 이론이나 학술 연구와 응용과 실천 연구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학문적 요구나 필요에 맞도록 수행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로 보면 법이 제정된 직후인 2005~2009년 활발하게 연구가 되다가 그 이후에는 게재 편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전후로 해서 이론 및 학술적 바탕위에 실천적 방안 모색으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가족 건강성의 중요성, 개별 가정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당위성 등으로 가정정책에 대한 근거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전달체계와 가족서비스의 내용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2003-2006년 사이에 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에서 건강가정을 주제로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즉, 사회환경과 가정의 변화에 따라 가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가정정책의 법적 근거와 전달체계(김승권, 2003)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관련연구는 2010년도 녹색성장과 건강가정(송혜림 외, 2011),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상 정립을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양정선·김성희, 2011) 등으로 학술대회에서 미미하게 다루지고 있으며 건강가정정책이나 법, 이념 등의 연구들이 정체된 상태로 보인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건강가정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보다는 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성과 등의 실천 영역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표 2> 참조). 대체적으로 2005년 3개의 센터를 시작으로

〈표 2〉 건강가정 관련 연구주제의 연도별 경향성

[단위 : 편]

	정책영역 : 법과 제도	실천영역(I): 센터 운영	실천영역(II) : 프로그램 개발, 성과	전문인력 관련 영역	기타	계
2000~2004	2	1	3	2	1	9
2005~2009	1	7	17	5	3	33
2010~2013	1	3	8	-	1	13
전 체	4	11	28	7	5	55

센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실천영역에서의 연구주제들이 다양해지고 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술지에서는 건강가정사업(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관련 영역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에 본격적으로 설치되면서 센터별로 실시되는 각종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타 영역에서는 인식이나 건강성, 척도개발 등의 연구가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영역의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거듭될수록 연구가 응용, 실천 영역에 치우치면서 최근 몇 년간의 연구에서는 학술적 연구 동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양상이어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이론과 학술적 연구 토대 위에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성과 부분의 연구는 초기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적절한 사업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의 프로그램의 방향성, 사회복지기관, 문화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유사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다양한 대상(주부, 노인, 청소년, 대학생, 결혼이민자 여성, 한부모가정 등)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이승미, 2003; 이선

형, 2004; 이영호, 2005; 이승미 외, 2005; 송혜림·김소영, 2005; 정선희 외 2005; 박미석·김경아 2006; 정영금·송혜림, 2007).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을으로의 경향성이 변화되고 있다(정지영 외, 2007; 김성희, 2009; 조성은 외, 2010; 송혜림, 2010; 구혜령·김선미, 2010; 차성란a, 2012; 차성란, b, 2012; 김선주·박정윤, 2013).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조성, 노년기 설계,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신혼기 부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방향 등이 있다. 그 외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배은숙·강기정, 2006; 채옥희·홍달아기, 2006)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성과 분석과 평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역임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사업이 공통필수사업과 선택사업, 별도사업, 신규 사업과 기존사업 등이 매해 내용과 운영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건강가정관점과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하여 실천현장과 연계함으로써 가정학이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영역이다. 연구내용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현(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시군구

〈표 3〉 건강가정 관련 연구방법의 연도별 경향성(복수코딩)

[단위 : 편]

	문헌연구	조사연구	심층면접	집중집단면접	실험연구	계
2000~2004	8	-	-	-	-	8
2005~2009	20	9	6	1	2	38
2010~2013	9	2	4	1	-	16
전 체	37	11	10	2	2	62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초기에 센터 운영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김성희, 2004; 송혜림, 2005; 조희금, 2005; 김명자, 외 2005; 장진경 외, 2005; 김미정, 2005; 송혜림, 2006), 최근 몇 년간은 광역 및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연구(송혜림·라휘문, 2009; 양정선·김성희,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특성에 대한 연구(송혜림·김소영, 2007; 최옥자·박현식, 2013)가 있었다.

그밖에 건강가정 전문인력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초기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교육관련 연구(송혜림 외 2004; 박미석·김경아, 2004; 고선강, 2005)부터 센터 종사자의 직무분석을 통한 핵심 직무 파악과 역량강화 연구(이윤정, 2008), 건강가정교육과정 중 건강가정현장실습 연구(손여경·이송이, 2009) 등이 수행되었다.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조희금 외, 2005)와 기타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방안(박미금 외, 2005; 김혜연, 2007), 건강가정 관련 척도 개발(구혜령, 2004; 김성희, 2007) 연구가 있었다.

2. 연구방법의 경향성

건강가정 관련 연구들의 연구방법들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몇몇 연구방법에 치중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가정관련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가 37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사연구가 11편, 심층면접

10편, 집중집단면접 연구가 2편, 실험연구 2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볼 때는 법제정 이전에는 모든 연구가 문헌연구로 이루어졌고, 그 후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조사연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헌고찰이 다수인 것은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평가나 성과분석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면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구들에 따라 분석하는 비율이 높은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조사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일반인들의 인식조사(박미금 외, 2005)를 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강기정 외, 2006; 정영금 외, 2009)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연구를 실시한 정도에 그치고 있어 양적 연구를 통한 관련분야의 동향과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센터종사자 심층면접(이승미 외, 2005; 강기정, 2007; 송혜림 외 2009; 손여경 외, 2009)이나(송혜림, 2009)의 경우는 센터 운영과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무자들을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방법으로 집중집단면접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종사자들의 센터 현실을 반영된 의견이나 내용들은 사업이나 센터운영 개선방안에 현실적이고 체감도 있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을 살펴보면(<표 4> 참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제도 관련 연구는 문헌연구(김승권, 2003; 조희금, 2003; 김성희 외,

〈표 4〉 건강가정 관련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경향성(복수코딩)

[단위 : 편]

	문헌연구	조사연구	심층면접	집중집단면접	실험연구	계
정책영역: 법과 제도	3	1	-	-	-	4
실천영역 (I): 센터 운영	8	3	1	-	-	12
실천영역(II): 프로그램 개발, 성과	18	5	7	2	2	34
전문인력 관련영역	5	2	1	-	-	8
기 타	2	1	1	-	-	4
전 체	37	11	10	2	2	62

2011)와 조사연구(박미금 외, 2005)가 실시되었으며, 실천영역 중 센터운영(장진경 외, 2006)과 관련된 영역은 8편의 문헌고찰(김명자 외, 2005; 송혜림 외 2006; 송혜림 외, 2007; 송혜림 외, 2009; 김성희 외, 2011), 3편의 조사연구(양정선 외, 2010), 1편의 심층면접(송혜림 외, 2009)을 실시하고 있을 뿐 본 연구에서 제시된 FGI 또는 실험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외의 양적, 질적 연구 모두 시도한 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천영역 중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관련 영역에서는 문헌고찰이 18편(송혜림, 2005; 정선희 외, 2006; 정영금 외, 2007; 정영금 외, 2009; 박정윤 외, 2010; 송혜림, 2010; 차성란, 2012), 조사연구 5편(박미석 외, 2006; 정지영 외, 2007; 김선주 외, 2013; 최옥희 외, 2013), 심층면접 7편(배은숙 외, 2006; 송혜림, 2010; 박경애, 2011; 차성란, 2012; 송혜림 외, 2012), FGI 2편(박미석 외, 2006; 강기정 외, 2013), 실험연구 2편(정선희 외, 2006; 채옥희 외, 2006)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영역의 경우 프로그램이나 사업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실험연구와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

한 사업수행 결과를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전문인력 관련 영역은 총 8편 중 5편이 문헌연구(고선강, 2005)였으며 조사연구 1편(이윤정, 2008), 심층면접연구 1편(강기정, 2007) 정도에 그치고 있다. 건강가정 관련 전문인력 영역은 종사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나 역량 강화 등의 주제와 관련된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연구대상의 경향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건강가정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 특성을 살펴보면(<표 5> 참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실무자)와 전문가 대상인 논문이 6편,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이나 사업 39편, 건강가정사업대상자 또는 잠재적 대상자(중년여성, 청소년, 기혼자, 취업여성, 센터이용 주민, 한부모가족, 시설청소년, 이주여성 등)인 논문이 11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연구대상 중 일반인은 가족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개인을 연구대상을 선정한 경우였으며 청소년(정선희 외, 2006), 시설청소년(배은숙 외, 2006), 중년여성(박미석 외, 2006), 건강가정

(표 5) 건강가정 관련 연구대상의 연도별 경향성 (복수코딩)

[단위 : 편]

	사업대상자(I): 개인	사업대상자(II): 가족	센터 종사자	전문가 집단	센터사업/ 프로그램	계
2000~2004	-	-	-	-	8	8
2005~2009	4	4	3	1	22	34
2010~2013	2	1	2	-	9	14
전 체	6	5	5	1	39	56

지원센터 이용주민(양정선 외, 2010), 기타 일반인(박미금 외, 2005; 강기정, 2007; 정영영금 외, 2009) 등이었다. 가족단위의 연구대상인 경우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이승미 외, 2005),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여성(채옥희 외, 2006), 자녀를 둔 기혼가정(김혜연 외, 2007), 기혼취업여성(송혜림, 2010), 가족봉사단(김성희, 2009; 박경애 외, 2011), 공동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참여 가족(차성란a, 2012) 등이 포함되었다.

또 다른 연구대상인 센터종사자인 연구들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담당 실무자(장진경, 외 2006; 강기정, 2007; 이윤정, 2008; 송혜림 외, 2009; 송혜림, 2009; 차성란a, 2012; 송혜림 외, 2012), 종사자 중 실습지도자(손여경 외, 2009), 기관사례관리자(강기정 외, 2013), 네트워크 사업담당자(최옥자 외, 2013) 등이었다. 그 외 광역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송혜림 외, 2009).

연구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센터프로그램이나 사업은 매우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었다. 주부대상 프로그램(송혜림, 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프로그램(김명자 외, 2005; 송혜림 외, 2006; 송혜림 외, 2007; 정지영 외, 2007; 송혜림 외, 2008; 박정윤 외, 2010; 송혜림 외, 2012; 차성란 b, 2012; 김선주 외, 2013) 등이 분석이 되었다.

건강가정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해서는 2003-2005년 학술대회에서 가족자원경영학

영역을 적용한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이영호, 2004; 이선형, 2004; 계선자 외, 2005; 이영호, 2005; 손주영, 2005; 송혜림, 2006)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대표(브랜드) 사업 개발(정영금 외, 2009), 교육 및 문화사업 개발 연구(송혜림, 2005; 박미석·김경아, 2006; 정영금, 2007; 정지영 외, 2007; 송혜림, 2009), 문화사업(가족품앗이 및 공공육아품앗이) 개발 연구(차성란a, 2012; 차성란b, 2012)가 진행되었는데 교육사업 개발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반면 문화, 상담 등의 다른 사업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가족자원경영의 학문적 토대를 사업 연계하는 실천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사업이나 프로그램은 2000년대 초반 학술대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대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가족복지 전달체계로서 자리매김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하는 분야임으로서 연구주제 역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상대적으로 사업대상자나 전달체계 내 종사자 대상 연구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다양한 가정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편적인 가족을 지향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가족을 사업대상자로 안고 가는가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가족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족적인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전달체계이므로 이들 대상자에 대한 소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

을 것이다. 건강가정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 참여자들에 대한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 수행이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건강가정관련 연구를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연도별 분류를 통해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자원경영학 관점에서 초기 건강가정에 대한 교육 및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가정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법제정의 필요성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2004년도 법 제정 이후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 내의 전달체계의 정착을 위한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분석과 내용을 검토하는 내용들, 브랜드화할 수 있는 사업개발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의 연구결과가 건강가정 실천현장에서 반영되는 정도의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자원경영학 관점의 반영 정도를 파악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반면에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나 건강가정사업에 집중된 연구들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자원경영학적 측면에서의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한 성과와 한계점,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나 시사점

이나 제안들이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실천 영역의 연계에 대한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와 실천이 좀 더 긴밀한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금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서 다루어진 연구주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회지에 게재된 다수의 연구들이 가족자원경영학의 학문적 근간을 토대로 하지 못한 채, 법 제정을 기점으로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건강가정 실천 및 응용 연구가 다수에 그치고 있다. 즉, 법 제정 전후로 건강가정과 가족자원경영학의 학문적 연계성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거나 전문인력의 가족자원경영학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미미한 수준에서 다루어지다가 이후에 학문적이고 이론적 연구는 최근 들어 매우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인력 관련한 주제로 건강가정사의 윤리와 가치에 대한 부분도 향후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연구주제 면에서 건강가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이 적용되는 것이 학회지 성격에 부합되는데 이에 대한 점이 전반적으로 미약함으로 향후 연구방향에서 가족자원경영학의 측면을 연계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거나 연구관점을 지향하는 것이 전공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의 건강가정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건강가정사업 개발에 있어서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가정관리 영역을 반영하는 사업영역을 제안하거나 개발하거나 현재 수행되는 사업 영역 중 교육 외 영역에 대한 사업내용 개발 및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 실천현장에서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분석에 있어서도 가족자원

경영학적 접근 정도를 분석하거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으로써 가족자원관리, 생활세계 등을 포함하는 것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법제정과 이후 전달체계의 정착에 초점을 두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가족자원관리 관점에서 가정의 건강성 향상에 자원관리의 영향변인을 파악하는 연구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가족자원경영학에서 강조한 가족자원관리 기술, 자원관리 행동의 결과가 가족의 건강성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밝힘으로써 이를 토대로 한 가정정책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 가족건강성과 가족자원경영과 연계하여 가족가치의 확산,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남성의 가족생활참여지원, 가족돌봄지원,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의 가족자원경영학적 측면이 반영되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이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고 조만간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전달체계의 통합에 대한 논의들도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전달체계 위상을 높이고, 전문화와 효율화 등에 대한 방안, 전달체계 통합의 방향과 지향점 등의 시의성이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학문적 접근과 다양한 의견 개진이나 제안 등이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구방법 역시 문헌고찰이 다수를 이루고 다른 연구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최근 가정학 내에서도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가족자원경영학회지의 선행문헌들의 연구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연구대상이 특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는 것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 건강가정 관련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건강가정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험연구, 시계열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시도해볼만하다. 또한 건강가정사업은 다양한 가정을 지원하는 만큼 접근성이 낮은 가정들의 사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례연구, 심층면접, 근거이론 분석 등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족자원경영학에서 건강가정과 관련한 중단연구가 미미한 수준이고 이미 조사된 거시적 자료 활용도가 크지 않음으로 향후에 거시적 자료(예시 : 여성가족 패널, 아동패널, 청소년패널, 노인 패널데이터 등)를 활용한 이차 분석이나 중단 분석 등을 실시하여 가정이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방향과 내용 등을 예측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향후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주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도입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가정사업관련 연구는 사업개발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사업효과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거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험연구 또는 사례분석 등을 시도해 보는 것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또, 최근에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지급까지 연구 관심이 비교적 낮았던 전문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전담 인력의 역량이나 직무관련 부분들을 밝히는 노력들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실천영역에 집중된 연구주제가 다수를 이루면서 건강가정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있으나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나 제도 변화, 센터 통

합에 대한 논의, 전문인력 역량강화 등이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달체계 운영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센터 내 다양한 영역별 종사자의 보유역량 정도, 장기근속을 위한 장애나 촉진요인 등을 밝히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건강가정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연구 역시 사업대상 가족이나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선행연구는 조손가족, 가족봉사단, 한부모가족 정도만을 포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가족의 가족기능 향상과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사업이나 프로그램 내에서도 현재의 가족 외 군인가족, 재소자가족, 상담 경험 가족,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점과 더불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대상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한정지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는 가족자원경영이라는 학문적 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으나 건강가정에 대한 논문은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등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가족자원경영학이라는 학문적 성격을 가장 반영하고 있는 학회지라는 의미는 있지만 여타 학회지에 실린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의 분석을 별도로 떼어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의 제언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주제를 본 논문에서 분석 한 것과는 다른 카테고리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정책과제로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돌봄 지원의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가족정

책임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라는 5가지 영역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영역이 얼마나 연구가 끌고 루 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나누어서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최근 10여년간 수행되었던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의 건강가정관련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료수집이 건강가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주제, 방법, 대상과 같은 학술적 측면을 일차원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이었고, 현재의 가족정책이나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한 실천적 측면의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분석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에 관련 연구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2007).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에서 액션러닝(Action Learning) 활용에 관한 탐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67-79.
- 2) 강기정·박수선(2013). 가족중심 사례관리의 지역사회 체계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125-144.
- 3) 고선강(2005). 건강가정사 양성을 위한 가족자원경영학 교과개편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133-144.
- 4) 구혜령(2004). 건강가정 생활진단 척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5-39.
- 5) 구혜령·김선미(2010). 가족친화 사회조성을

-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3-189.
- 6) 김정신·이승미(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건강가정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57-370.
 - 7) 김정신·정민자·송혜림·성미애·박정윤(2008). 가정정책 방향모색을 위한 전문가 조사연구 : 통합적 가정정책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67-179.
 - 8) 김명자·계선자·박미석·장진경·김연화(200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2004년 용산구.숙명여대 가정생활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34.
 - 9) 김명자·계선자·박미석·장진경·김연화·유진아·한은주(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3(8), 123-139.
 - 10) 김미정(2005).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5-61.
 - 11) 김선주·박정윤(2013).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19-37.
 - 12) 김성희(200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실천적 전략 모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9-73.
 - 13) _____(2009). 여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녹색성장운동-재활용악기를 이용한 가족봉사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3-184.
 - 14) 김성희·양정선(2007).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자가진단 척도 개발의 기초연구-감마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55-71.
 - 15) _____(2011).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43-64.
 - 16) 김승권(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29.
 - 17) 김진희(2008).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2), 25-37.
 - 18) 김혜연·곽인숙·홍성희·김성희(2009).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코칭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209-225.
 - 19) 김혜연·서종선(2007). 건강가정 및 건강가정 실천방안에 대한 인식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81-105.
 - 20) 도미향(2009).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Developing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for Empowering Family Welfare Service in Korean Local Communities. 한국가족복지학, 14(2), 51-70.
 - 21) 박경애(2011). 가족봉사단의 봉사활동 경험의 효과 연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79-105.
 - 22) 박미금·이미선·이영호·최보아(2005a).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39-152.
 - 23) _____(2005b).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3), 97-112.
 - 24) 박미석(2004).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사의 역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31.
 - 25) 박미석·김경아(2006). 가족생활건강성 향상을 위한 가정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가정 CEO-.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113-130.

- 26) 박정윤(2008).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문화 사업평가에 관한 연구.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25-36.
- 27) ____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한부모가정 관련 사업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67-178.
- 28) 박정윤·윤소영(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 및 건강가정캠페인 사업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59-77.
- 29) 배은숙·강기정(2006). 시설청소년의 가족 인식 및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요구-시설청소년과 퇴소자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2), 107-125.
- 30) 손여경·이송이(2009). 건강가정현장실습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247-280.
- 31) 손주영(2005). 고려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례-2005년 고려대학교 청소년을 위한 건강가정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9-83.
- 32) 송혜림·장진경(200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03-318.
- 33) 송혜림(2005a). 연구측면에서 본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가정경영연구의 활성화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31.
- 34) ____ (2005b).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부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모형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1), 17-39.
- 35) ____ (200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노년기 생활계획프로그램-실태와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25-240.
- 36) ____ (2009). 공공가정의 인적자원 관리방안-건강가정사 직무분석에의 적용.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23-39.
- 37) ____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혼 취업여성 대상.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17.
- 38) 송혜림·권혜진·기은광·김선우·김소영·채화영(2004). 초기 건강가정사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3), 65-93.
- 39) 송혜림·김소영(2006).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의 가능성-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2), 1-18.
- 40) ____ (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95-110.
- 41) 송혜림·김유경(2011). 녹색성장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 : 과제와 실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17.
- 42) 송혜림·김유경·조영희(2012). 2011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손가정 지원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83-107.
- 43) 송혜림·라휘문(2009).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16.
- 44) 송혜림·정영금(200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20.
- 45) 양정선·김성희(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213-237.
- 46) 오윤자(200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애아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67-179.
- 47) 윤경자(2008). 건강가정을 위한 한국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85-101.

- 48) 윤중희(2006). 건강가정 사업에서 가족-중심 개입을 위한 개념 모형.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44(3), 115-126.
- 49) 원소연·장진경(200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44(8), 101-116.
- 50) 이선형(2004).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7-52.
- 51) 이승미(2003).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7-90.
- 52) 이승미·김선미(2005).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례에 비추어 본 지원방안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95-112.
- 53) 이승미·송혜림·라휘문·박정윤(2012). 가족복지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1-15.
- 54) 이영호(2004). 생활설계프로그램의 활용-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5-66.
- 55) _____(2005). 자취생의 생활설계 프로그램-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 프로그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03-113.
- 56) 이윤정(200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사업 담당 건강가정사의 직무와 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79-100.
- 57) 이은주·전미경(2013).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가정헌법’ 분석과 발전방향-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93-108.
- 58) 이지원·박정윤·김양희(2008). 가족자원봉사 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6), 89-100.
- 59) 임춘희(2007). 건강가정사가 지각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업무와 근무환경.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83-105.
- 60) 장진경·오제은·한은주·류진아·원소연(2006a). 건강가정지원센터 홍보 및 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2), 127-149.
- 61) _____(2006b).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의 역할인식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0), 21-34.
- 62) 정민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19-329.
- 63) 정선희·김윤선·손주영·이연숙·이윤정(2006). 청소년을 위한 건강가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1), 127-147.
- 64) 정여주·이기숙(2013). 건강가정사의 조직문화 인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4), 461-484.
- 65) 정영금·강기정·박정윤·정지영·조성은(200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83-98.
- 66) 정영금·송혜림(2007). 건강가정 주부 CEO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37-53.
- 67) 정영금·조성은·안재희·김지수(2013).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시행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83-96.
- 68) 정지영·정영금·조성은(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93-114.
- 69) 정지영·조성은(2009). 녹색가족성장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3-69.
- 70) 조성은·정지영·이윤정(2010).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

- 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39-153.
- 71) 조희금(2003). 가족자원경영 측면에서 본 건강가정육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3-56.
- 72) 조희금·박미석(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31-344.
- 73) 조희금(200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가족자원경영학의 역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14.
- 74) 조희금·고선강·박정윤·성미애·송혜림·이승미·이현아·장진경·정민자(2014). 건강가정백서. 서울 : 대한가정학회.
- 75) 진미정·유재연(2012). 지리적 접근성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7), 13-20.
- 76) 차성란(2012a).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지역화폐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67-82.
- 77) ____ (2012b).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 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87-2010.
- 78) 채옥희·홍달아기(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63-88.
- 79) 최연실·송명숙·권희경·조은숙·남영주(2012). 가족서비스 실천과정에서의 건강가정사의 관점에 대한 질적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7), 21-35.
- 80) 최옥자·박현식(201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4), 85-100.

- 투 고 일 : 2014년 9월 26일
- 심 사 일 : 2014년 10월 6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3일